

《 \_\_\_\_\_ 논술 세특용 보고서 》

하이에듀

<p><b>주제</b></p>	<p>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타당한가? <span style="color: red;">✓전공적합성 ✓ 학업역량</span></p>
<p><b>개요</b></p>	<p><b>서론</b> 주제 선정 계기 반대 주장 제시</p> <p><b>본론</b> 반대 근거 1)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보았을 때 손실의 크기가 더욱 큼 반대 근거 2)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해결 수단을 고안해야 함 반대 근거 3) 혐오 표현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불평등 발생</p> <p><b>결론</b> 의견 정리 및 제언</p>
<p><b>가이드</b></p>	<p><input type="checkbox"/> <b>서론</b></p> <p>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할수록 온라인 상에서 혐오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연장선으로 오프라인 생활에서도 혐오의 감정과 표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을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의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p> <p><input type="checkbox"/> <b>본론</b></p> <p>우리나라는 헌법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또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양측의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보았을 때 손실의 크기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p>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인 혐오의 감정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억제한다거나, 혐오 표현이 아니더라도 법적 규제가 두려워 자유롭게 원활한 의견 교류가 되지 않는다거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해결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올바른 권리 사용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가장 피해와 타격이 큰 법적 제재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해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어떤 표현은 규제되고 어떤 표현은 규제가 되지 않는, 선택적 규제를 불러와 법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역으로 오남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 □ 결론

정리하자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손실과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손실이 더욱 크며,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수단이 아닌 교육과 같은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다 제재할 수는 없으므로 법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만연한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에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의 주권 또한 존중해야 자유롭게 건강한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료1. 법학논총)국내의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pdf**

해당 자료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